

한미약품, 항암제·비만약 등 개발 박차... '신약' 성과 눈 앞

경영체제 변화 속 '본업 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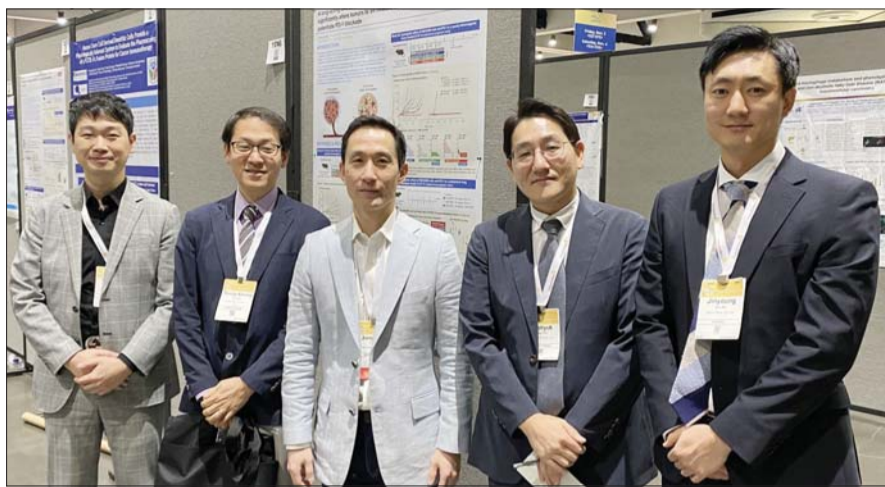
美 FDA서 'HM16390' 임상 계획 3년내 '한국형 비만약' 탄생 기대
고혈압·희귀질환 치료제 연구 가속

한미약품그룹의 경영 체제 변화가 예고돼 주주와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약품이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신성장동력 확보에 매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최근 차세대 면역조절 항암 혁신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임상시험에 돌입했다. 한미약품이 면역항암제로 개발 중인 'HM16390'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 1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은 것.

해당 임상에서 한미약품은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HM16390의 안전성과 내약성, 약동학, 약력학 특성 등을 평가한다.

HM16390은 인터루킨-2(IL-2) 변이체다. 인터루킨-2는 면역세포의 분



지난해 11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면역항암학회(SITC)'에서 한미약품의 차세대 면역조절 항암 혁신신약 후보물질 'HM16390'의 임상 1상 책임 연구자를 맡은 박종철 교수(가운데)와 한미약품 ONCO임상팀 노영수 이사(왼쪽에서 첫 번째), 최재혁 R&D센터 그룹장(왼쪽에서 네 번째), 김진영 파트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미약품

화와 증식에 관여해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미약품은 독자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를 적용해 항종양 효능, 안전성, 지속성 등을 극대화하는 작용기전을 연구하고 있다.

HM16390이 기존 IL-2 제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전임상 결과를 입증해 왔고, FDA에서 요구하는 혁신적 임상 디자인을 반영해 신속하게 IND

승인을 획득하는 성과를 창출했다는 것이 한미약품 측의 설명이다.

또 한미약품은 '한국형 비만약' 탄생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고 있다. 한미약품은 국내 성인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에페글레타이드'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국내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임상 종료는 오는 2026년 상반기로 예상돼 한미약품은 향후 3년 내 국내에서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에페글레타이드의 경우, 한미약품의 바이오의약품 전용 공장 '평택 스마트플랜트'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한미약품은 경제적 비용, 안정적 공급 등을 통해 약물 접근성과 지속성까지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의 또 다른 비만 신약후보물질 HM15275는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미국당뇨병학회(ADA 2024)'에서 주목을 받았다. HM15275는 삼중 작용제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위 억제 펩타이드, 글루카곤 등 각각의 수용체 작용을 최적화하는 기전을 갖췄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은 해당 물질이 비만 치료뿐 아니라 다양한 대사성 질환에서 효력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연말에는 '에페글레타이드', 'HM15275'에 이어 비(非)인크레틴 작용 기전의 신개념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추가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미약품은 국내 최초로 개발 중인 '저용량 고혈압 3제 복합제', 희귀 유전성 대사질환 파브리병 치료제 'LA-GLA' 등 다양한 연구개발을 활발히 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미약품그룹이 겪고 있는 경영권 관련 갈등과는 달리, 신약개발이라는 본업 활동은 견고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현재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뿐 아니라 신약개발 명가라는 명성을 지키기 위한 연구개발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중심으로 한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밝힌 가운데, 업계는 한미약품의 R&D 성과, 핵심 품목의 매출 성장 등을 감안하면 회사가 앞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증권 업계에서는 한미약품의 연결 기준 2분기 매출액이 지난 2023년 동기 대비 11.8% 증가한 3871억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보다 63.9% 증가한 54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시장전망치인 매출액 3869억원, 영업이익 469억원에 매출액은 부합하고 영업이익은 상회하는 호실적을 낼 것으로 예측했다.

/이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산업부, AI 전문 디자이너 1만명 키운다

'AI 디자인 확산 전략' 공개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4개 전략 추진

정부가 AI(인공지능) 전문 디자이너 1만명을 양성하는 등 국내 디자인산업에 AI를 빠르게 도입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디자인 혁신을 통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후 LG사이언스파크에서 안덕근 장관과 디자인 기업·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 디자인 확산 전략'을 공개했다.

AI 디자인 확산 전략은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핵심 경쟁력 확보 ▲신시장 창출 ▲AI 디자인 제도·규범 설계 등 4개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디자인기업 AI 도입률 50%, AI 디자이너

1만명, AI 디자인 혁신기업 500개를 목표로 전산업의 디자인 활용률을 현재 37%에서 6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먼저, 7대 분야에서 'AI 디자인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올해 트렌드 분석, 디자인 유사도 검색, 디자인 지식·연구 특화 경량언어모델(sLLM) 등 3대 AI 서비스 개발을 디자인진흥원 중심으로 착수한다. 2025년에는 소비재 디자인, 최적 공학 부품 설계 등 AI 디자인 활용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디자인 업계 수요를 발굴해 3년간 20개 AI 디자인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기술과 인재 등 AI 디자인 핵심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도 나선다. 올해 중 디자인컨셉트, 디자인생성, 프로토타이핑, 디자인-생산연동, 디자인 지식·보호 등 5대 분야에 필요한 AI 디자

인 기술로드맵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R&D를 지원한다. 또 6대 권역별로 디자인창작랩을 구축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디자인 펀드 조성 및 금융지원 방안도 강구한다.

AI 디자인 시장 활성화 지원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제조, 네티, 엔지니어링 등 4대 산업 분야별 생성형 AI를 활용해 시장 분석, 제품디자인, 설계 자동화 등을 지원하는 협업 프로젝트 150여 개를 선정해 지원한다.

안덕근 장관은 "AI 시대에 우리 디자인기업과 디자이너들이 누구보다 앞서 AI를 적극 도입하고 활용해 세계 최고의 기업과 인재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K-디자인이 AI를 활용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오늘 발표한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시멘트업계 "올해 연간 출하량 20% 줄어든 수도"

>> 1면 '건설경기 악화에...'서 계속

레미콘업계도 힘들긴 마찬가지다.

A사의 경우 올해 상반기(1~6월) 레미콘 출하량은 199만㎥(루베)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35만 ㎥에 비해 15.3% 가량 줄어든 양이다.

A사 관계자는 "2022년 상반기 출하량은 280만 ㎥이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2년전에 비해 출하량이 28.9% 정도 줄어든 것으로 파악돼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출하량 기준으로 2021년에 353만 ㎥를 기록했던 B사도 2022년 318만

㎥, 2023년 335만 ㎥ 등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 수준보다 크게 하락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B사는 1분기 기준으로 141만 ㎥에 그쳤다.

수도권에서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대표는 "사업하면서 이런 적은 없었다. 전국적으로 레미콘 수요가 반토막이 났다. 사정이 그나마 나은 수도권도 지난해에 비해 40% 정도 물량이 줄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레미콘 기사들은 운송비를 올려달라고 압박하고 있어서 면초가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물량이 가장 많이 집중해 있는 수도권의 경우 1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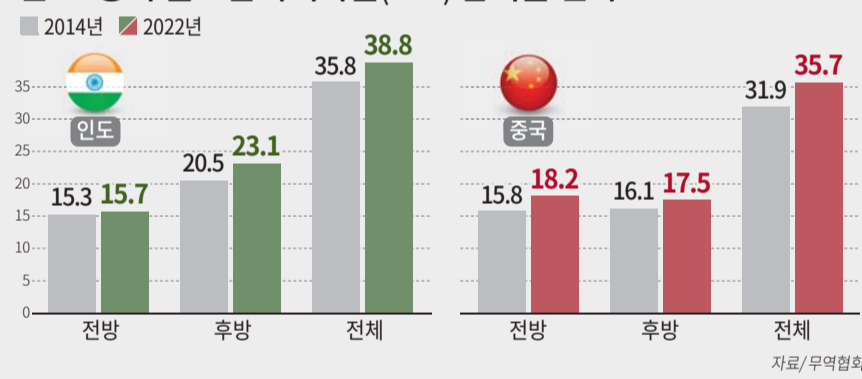
권역으로 나눠 개별 회사와 운송사업자 간 운송비 협상을 이번주부터 본격 시작했다. 하지만 타결을 보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운송비 등을 놓고 지난 1일 파업에 돌입했다. 이틀후인 3일 철회한 바 있다.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2018년 당시 ㎥당 6만6300원이었던 레미콘 단가(25~24-150 규격 수도권 협단가 기준)는 2023년 8만8700원으로 5년간 33.8% 올랐다. 2019년엔 동결되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인도·중국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율 변화



'글로벌 생산기지' 中 가고 인도 온다

무협, 인도 투자진출 진단
인도 GVC 후방참여율 23.1%로 8년전 20.5% 보다 2.5%p 상승
중 전방참여율 증가 0.4%p 그쳐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할 것인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9일 발표한 '모디 총리 3연임과 대 인도 투자진출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탈중국 현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 중국의 후방참여율 확대가 더딘 가운데, 인도가 이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VC 후방참여율이란 총수출 중 해외 중간재를 이용해 자국 수출품을 생산하는 비중으로, 후방참여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해외 중간재 수입 후 수출품을 생산하는 비중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2022년 기준 인도의 GVC 후방참여율은 23.1%로 모디 총리가 집권한 2014년 20.5%와 비교해 2.6%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총수출 중 자국 수출품이 외국 수출품 생산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비중인 GVC 전방참여율 증가는 0.4%포인트에 그쳤다.

반면, 중국은 중간재 자급률이 빠르

게 상승하면서 전방참여율이 2.5%포인트 증가하는 동안 후방참여율은 1.4%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산업별로 보면, 인도의 기초·가공금속(54.9%), 석탄·정제석유(50.6%), 운송기기(34.3%) 등의 후방참여율이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간재를 주력으로 수출하는 한국 입장에서 인도 시장 공략시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산업분야로 봤다.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도 해외 생산기지로써 인도를 주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협이 인도 투자 진출 기업 15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곳 중 7곳(68.1%)은 향후 5년 내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는 세계의 공장으로서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기업의 74.5%는 모디 총리 3연임이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것이라고 답했다.

주요국의 대 인도 외국인직접투자(FDI)도 재생에너지·건설인프라·의약품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의 인도 투자 확대가 두드러진다. 다만 우리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은 다소 더딘 편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0.7%에 그쳤다.

/세종=한용수 기자